

# 「2023 국민참여 청렴콘텐츠 공모전」 동화 분야

작품 제목	페어트리(Fair Tree)
-------	-----------------

## 동화 본문

“이대로라면 청렴나무는 곧 사라질거야... 그러면 우리 모두도 사라지겠지.”

아빠는 한숨과 함께 나지막한 목소리로 말했다. 지금은 2,123년, 몇 번의 우기와 한 번의 빙하기에도 인류는 살아남았다.

신의 마지막 가호인건지 인류가 살아남을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청렴나무라 불리우는 페어트리 덕분이었다. 쏟아져내리는 비와 눈에서도 살아남은 페어트리는 연구대상이 되었고, 페어트리가 발산하는 공기와 뿌리에서 얻을 수 있는 연료가 인류의 생존에 지대한 영향을 준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그러나 페어트리가 중요함에도, 페어트리를 어떻게 하면 지속해서 성장시킬 수 있는지를 인류는 한동안 밝혀내지 못했다. 그러나 우연히 한 소녀의 발견으로, 페어트리를 계속해서 성장시킬 수 있는 방법이 밝혀진다. 사회에서 청렴의 가치들이 많이 나타나고 그러한 상황이 많이 나타날수록 페어트리가 지속해서 성장하는 것이 발견된 것이다.

그러나 몇 번의 우기와 빙하기를 거치며 부정부패와 각종 부조리가 사회에 더욱 많이 퍼졌다. 사람들의 균열된 마음의 틈새로 양심과 정직, 공정 등의 가치는 파고들지 못했다. 그렇게 페어트리는 한 그루 한 그루 말라 죽어 갔다.

페어트리가 말라 죽어 가는 광경을 아빠는 매일 안타깝게 지켜보았다. 아빠는 페어트리를 관리하는 페어트리 관리업체의 직원이다. 아빠는 어릴 때부터 페어트리를 좋아했다고 한다. 꿈도 페어트리 꿈을 꿀 정도인데, 그런 아빠에게 페어트리가 계속해서 말라죽는 광경은 마음이 아플 수 밖에 없다. 페어트리가 말라죽는 속도는 더욱더 가속도가 붙어갔고, 아빠의 미간에는 주름이 더욱 깊어져만 갔다.

나도 페어트리를 아빠 못지않게 좋아한다. 어렸을 때는 페어트리 이파리를 가지고 매일 놀았다. 정직하고 바른 행동을 하면 페어트리 이파리는 약간의 빛을 내면서 더욱 생기가 돈다. 그 모습이 좋아서 매일 매일 페어트리만 바라봤다.

페어트리가 멸종할지도 모른다는 소식은 내가 다니는 학교에도 삼시간에 번졌다. 아침마다 확인하는 VR을 켜고 페어트리 식생지도를 확인하는 아이들이 늘어났다. “페어트리 서식지가 또 3% 줄었어. 봤어?” 페어트리 식생지도 VR을 켜 주희가 옆에 와서 말을 건다. “이거 뭐라도 해봐야 하는 거 아닐까?” 주희가 불안하게 중얼거린다.

솔직히 말하자면 나도 뭔가 아주 작은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해보고 싶다. 그렇지만, 이미 부정부패와 부당함이 널리 퍼져 있는 상황에서 내가 무엇을 하는 게 과연 정말로 페어트리를 살릴 수 있을지 자꾸만 의구심이 든다. 나 하나가 공정하고 청렴하게 행동한다고 정말로 죽어가는 페어트리를 살려낼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 그냥 결국에는 아무 소용없을 거라는 두려움. 이 시대에 정말 페어트리를 살려낼 수 있는 양심과 공정이 살아남을 수 있을까 하는 절망감.

우울한 마음을 가득 안고 플라잉버스를 타고 집에 가는 길, 주희는 여전히 옆에서 페어트리 얘기를 한다. 그리고 주희는 비밀스럽게 목소리를 낮춰 속삭이듯 말한다. “저 늪지대 뒤에 페어트리를 살릴 수 있는 방법을 아는 사람들이 있대.” “그렇지만 거긴 갈 수 없는 곳이잖아.” 나도 덩달아 속삭이듯 말했다. 몇 번의 우기를 지나며 도시 곳곳에는 늪지대가 많이 생겼고, 늪 근처에서는 흥흥한 일들이 잇달아 벌어진다는 소문이 돌았다. 결국 늪 근처는 폐쇄구역이 되었고 사람들이 가지 않는 곳이 되었다.

그런데 그곳에 페어트리를 살릴 수 있는 사람들이 있다니. 정말 그 소문이 진짜고 그 사람들이 그 방법을 안다면 어쩌면 이것은 페어트리에게 마지막 기회일지도 모른다. “나 가볼래.” 주희가 휘둥그레진 눈으로 나를 바라본다. “어딜 가? 설마 늪지대 뒤는 아니지?” 대답이 없는 나를 보며 주희가 다그친다. “야, 갈 수 없는 곳이라고 한 거 너야. 너 알잖아 거기 못가는 거.” “그래도... 혹시 모르잖아. 마지막 희망 일지도.”

주희는 잠시 고개를 숙이더니 말이 없다. “너 진짜 갈거지? 말려도 안 들을거지?” 대답이 없는 나를 주희는 지그시 바라보더니 결심했다는 표정을 지었다. “나도 데려가. 같이 가.”

새벽의 희부연 빛이 밝아오는 시간, 백팩을 맨 주희가 비장한 표정을 하고 우리 집 앞에 서있었다. 아빠가 깨지 않게 조용히 나오느라 거의 기어가다시피 나온 나를 주희가 바라보았다. “정말 갈 거지..?” 다시금 묻는 주희에게 고개를 끄덕여보였다. 주희와 나는 늪지대로 향하는 길을 걷기 시작했다.

주로 플라잉버스를 타고 다니는 우리에게 흙길을 걷는 느낌은 색달랐다. 터벅터벅 걷는 우리 뒤로 해가 떠오르고 늪지대 너머로 가는 길이 보이기 시작했다.

늪지대로 가는 길은 예상보다도 더 험난했다. 주희와 내가 몇 번을 물웅덩이에 발을 헛디디며 비틀거릴 무렵, 우리 앞에 늪지대 너머의 표지판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표지판은 매우 낡고 오래되어 변색되어 있었다. 늪지대 너머를 가리키는 표지판을 따라 계속 걸었지만, 사방이 짙고 어두운 안개가 가득해서 맞게 가는 건지는 혼란스러웠다.

한참을 헤매던 우리 앞에 갑자기 검은 옷을 입은 사람들이 나타났다. 그리고 주희와 나는 순간 정신을 잃었다. 아마도 최면가스를 사용한 듯 하다. 눈을 떠보니 하얀 옷을 입은 할머니가 우리를 살펴보고 계셨다. 할머니의 옷에는 페어트리를 형상화한 듯한 문양이 그려져 있었다. “무슨 일 때문에 늪지대 뒤로 오게 된거냐?” 할머니는 엄한 어조로 말했다. “페어트리들이 죽어가고 있어요...” 나의 말에 할머니는 깊은 한숨을 쉬더니, 나와 주희에게 따라오라고 손짓했다.

할머니를 따라 뒤로 향하니 밝은 공간이 펼쳐졌다. 그리고 그 공간에는 엄청난 수의 페어트리 군락이 자리잡고 있었다. 나와 주희는 입을 다물지 못하며 놀랐다. “이게 어떻게 가능한거죠? 페어트리 서식지도에는 이러한 규모의 페어트리가 보이지 않았는데...” 할머니는 그 말에 심술궂게 웃으며 말했다. “그 지도는 늪지대 뒤까지는 측정할 수 없다. 안보이는 게 당연하지.” “여기로 오면, 페어트리를 살릴 수 있다고 들었어요.” 할머니의 표정은 미묘해졌다. “늪지대 밖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더냐?” “그런 소문이 돌고 있어요. 자꾸 자꾸 페어트리가 죽어가기까.”

할머니는 깊은 한숨을 쉬며 말했다. “그렇겠지. 내가 늪지대 밖 사람들에게 전달한 내용을 그들은 실천하지 않고 있으니까.” 할머니는 무엇을 전달했다는 걸까. “설마... 할머니가 그 소녀예요? 페어트리를 계속해서 성장시키는 법을 발견했다는..?” 할머니는 말을 잊지 않고 그저 나와 주희를 바라보았다. 그리고 할머니는 오래된 긴 이야기를 시작했다.

인류의 생존에 필수적인 나무를 지속해서 살리기 위해 정말 여러 가지 방법을 시도해봤던 소녀, 지금의 할머니는 청렴한 가치들에 반응하는 페어트리의 특징을 발견하고 날 듯이 기뻐했다고 했다.

그러나 기쁨도 잠시, 늪지대 밖 사람들은 날이 갈수록 청렴의 가치와는 반대되는 행동을 했다고 한다. 갑질, 불공거래, 부당함. 할머니는 뜻이 맞는 사람들과 페어트리를 살려야 한다고, 청렴의 가치를 중요하게 여겨야 한다고 의견을 주장했지만, 늪지대 밖 사람들은 듣지 않았다.

할머니는 하루, 이틀, 일주일, 몇 년을 그렇게 공허한 외침을 이어갔다. 그리고 점차 포기하기 시작했다. 듣지 않는 사람들에게 지친 할머니는 뜻이 맞는 이들과 늪지대까지 오게되었고. 늪지대 안 사람들은 할머니의 말을 귀담아 들어주었다. 그렇게 늪지대 안에는 기존의 페어트리와 할머니와 사람들이 들고온 작은 페어트리 식수들까지 무럭무럭 자라게 되었다. 그리고 지금의 저 대규모의 페어트리 군락이 되었다고 한다.

할머니의 긴 얘기를 듣고, 늪지대 안 사람들이 문득 나는 궁금해졌다. “늪지대 안 마을을 구경해 볼 수 있을까요?” 할머니는 의미심장한 눈빛으로 나를 바라봤다. 망설이는 듯 보였던 할머니는 마침내 결심을 굳힌 듯 근처에 있던 검은 옷의 남자를 불렀다.

그리고 그의 안내로 우리는 늪지대 안 마을로 들어섰다.

늪지대 안 마을의 모습은 놀라웠다. 많은 이들이 서로를 존중하고, 공정하고 청렴이 지켜지는 사회였다. “어떻게 이렇게 청렴한 가치가 지켜질 수 있죠?” 나는 할머니를 향해 물었다. “타인의 말을 존중하고 깊이 있게 듣고, 일상 속에서 공정과 청렴의 가치를 조금씩 실천해나가는 게지. 그게 다란다.”

할머니의 말씀은 내게 깊은 깨달음을 주었다. 나 혼자 공정하고 청렴하게 양심을 지킨다고 아무 소용이 없는 게 아니라는 것. 그리고 일상 속에서 조금씩 나와 또 다른 나가 힘을 모아서 실천하면 어쩌면, 페어트리가 다시 살아날지도 모른다는 것. 그렇게 작은 희망이 마음속에서 움트었다.

주희와 나는 그러나 늪지대 밖 마을에서 페어트리를 살리기 위해 어떻게 해야 좋을지 여전히 막막했다. 우리의 표정이 여전히 어두워보였는지 할머니가 다시 우리에게 다가왔다. “고민이 있는가보구나.” “늪지대 밖 마을에서 어떻게 해야 페어트리를 살릴 수 있을지 막막해요.” “정말 페어트리를 살리고 싶은 게냐?” “네. 이게 마지막 희망이에요.” 굳게 다짐한 나의 모습을 보며 할머니는 결심한 듯 말을 이었다. “늪지대 안의 사람들이 도와주마.”

약간은 녹이 손 격납고 문을 열자, 구형 플라잉카 모델들이 나타났다. “언젠가는 필요로 하는 날이 올 거 같았지.” 할머니가 플라잉카의 조종석을 잡으며 말했다. 할머니가 모는 플라잉카를 타고 우리는 늪지대 위를 날아올랐다.

그렇게 우리가 늪지대 위를 날아올라 늪지대 밖 마을로 돌아온 날, 늪지대 밖의 페어트리는 고작 7%밖에 남지 않았다. 우리를 애타게 찾던 가족과 사람들은 낡은 플라잉카를 타고 날아온 우리를 어리둥절하고 또 일종의 경계심이 담긴 눈빛으로 쳐다봤다. 그 뒤의 일은 일종의 꿈만 같다. 페어트리 식생지도 분포가 10% 이하로 떨어져, 공포에 떨고 있던 사람들은 늪지대 밖의 사람들의 말에 귀를 기울였다. 처음으로 늪지대 밖 사람들은 안 사람들의 말에, 그들이 들고온 어린 페어트리 나무의 모습에 귀를 기울였다. 직접 키우고 움을 틔운 어린 나무들의 모습에 늪지대 밖 사람들은 경이로움을 표현했다. 눈물을 흘리는 이도 있었다.

그 이후 늪지대 안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 늪지대 밖 사람들은 조금씩 변화를 실천했다. 나부터, 내가 먼저, 나라도 공정하고 청렴하게 일상속에서 양심을 지키고자 했다. 그렇게 변화는 느리지만 꾸준했고, 하나 하나의 마음들이 모여서 더 큰 마음이 되었다. 그리고 그 마음들은 페어트리를 다시 자라게 했다. 오랜만에 페어트리 식생지도가 감소 표시가 아닌 증가 표시가 나타나던 날, 나와 주희는 서로 얼싸안고 눈물을 흘렸다.

물론 변화가 쉽지만 한 것은 아니었다. 내가 왜 그래야 하냐는 의견도 많이 나왔다. 그렇지만 그렇게 흔들리면서 청렴과 공정 그리고 양심의 가치들은 조금씩 조금씩 사람들의 마음에 자리잡았다. 그리고 어느덧 페어트리 식생지도는 30% 수준을 웃돌았다.

지금은 2,123년, 몇 번의 우기와 한 번의 빙하기에도 인류는 살아남았고, 청렴과 공정과 양심으로 다시 자라난 페어트리와 함께 우리는 다시 한 번 살아남고자 한다. 나도 주희도, 그리고 당신도 함께.